

기피되는 집

The Shunned House

H.P. 러브크래프트 (1890-1937)

1937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05-25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H.P. Lovecraft, "The Shunned House" (Weird Tales 1937
년 10월 (집필 1924))

저자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 (Howard Phillips Lovecraft,
1890–1937)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31469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05-25

번역 정책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코스믹 호러 특유의 음산한 격조를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괴 소설의 거장이 남긴, 거대한 힘을 지닌 유작. 뉴잉글랜드의 어느 오래된 저택 지하실에서 벌어지는 역겨운 공포에 관한 이야기.

하워드 필립스 러브크래프트는 지난 3월, 작가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중 세상을 떠났다. 향년 마흔여섯이라는 젊은 나이였으나, 그는 기이한 이야기들에 담긴 예술성과 결점 없는 문학적 기교를 통해 국제적인 명성을 쌓았다. 대서양 양안의 문단은 그를 현대 괴기 소설 분야에서 아마도 가장 위대한 거장 중 한 명으로 평가했다. 우울한 공포와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그의 능력은, 여기 소개하는 유고 단편 「기괴되는 집」에서 그 정점을 보여준다.

아무리 거대한 공포라 할지라도 그 속에는 아이러니가 깃들어 있기 마련이다. 때로는 아이러니가 사건의 구성 요소 그 자체로 직접 개입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건이 얹힌 인물이나 장소의 우연한 배치와 관련되기도 한다. 후자의 사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고도(古都) 프로비던스에서 일어났다. 그곳은 1840년대 후반, 에드거 앨런 포가 재능 있는 여류 시인 휘트먼 부인을 향한 짝사랑에 실패하며 자주 머물렀던 곳이기도 하다. 포는 대개 베니핏가에 위치한 맨션 하우스에 머물렀다. 그곳은 과거 골든 볼 여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으며, 워싱턴과 제퍼슨, 그리고 라파예트가 머물렀던 지붕 아래의 유서 깊은 곳이다. 포는 베니핏가를 따라 북쪽으로 걷는 산책을 즐겼는데, 그 길 끝에는 휘트먼 부인의 저택과 인접한 세인트 존 교회 묘지가 있었다. 18세기의 비석들이 숨겨진 채 넓게 펼쳐진 그 묘지는 포에게 기묘한 매력을 선사하곤 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실은 이렇다. 수없이 되풀이된 이 산책길 위에서, 공포와 기괴함을 다루는 세계 최고의 거장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집 한 채를 지나쳐야만 했다. 그 집은 베니핏 가 동쪽, 갑자기 솟아오른 언덕 비탈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낡고 지저분한 건물이었다. 집 앞에는 이 지역이 아직 탁 트인 벌판이었던 시절부터 이어져 온, 잡초가 무성한 넓은 마당이 딸려 있었다. 그는 이 집에 대해 글을 쓰거나 말을 한 적이 없는 듯하며, 심지어 그가 이 집을 눈여겨보았다는 증거조차 없다. 하지만 어떤 정보를 알고 있는 두 사람에게 있어, 그 집은 자신도 모르게 그 앞을 수없이 지나쳤던 천재가 만들어낸 그 어떤 기상천외한 환상보다도 더 끔찍하거나, 혹은 그보다 더한 공포를 선사한다. 그 집은 형언할 수 없이 추악한 모든 것들의 상징이 되어, 그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을 뿐이다.

그 집은—지금도 여전히 그렇듯—호기심 많은 이들의 시선을 끌 만한 구석이 있었다. 원래는 농가나 농업용 부속 건물이었던 그곳은 18세기 중반 뉴잉글랜드 식민지 양식의 전형을 따르고 있었다. 2층 구조에 다락창도 없는, 지붕이 뾰족하고 번듯한 형태의 집이었다. 조지아 양식의 출입구와 내부 판벽은 당시의 유행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었다. 집은 남향이었는데, 한쪽 박공벽 끝은 동쪽으로 솟은 언덕에 파묻혀 아래층 창문까지 닿아 있었고, 반대쪽은 도로를 향해 기초부터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백오십 년도 더 된 이 집의 건축은 당시 그 일대의 도로 정비 작업과 맞물려 진행되었다. 원래 '백 스트리트'라 불렸던 베니핏 가는 초기 정착민들의 묘지 사이를 구불구불 지나가는 좁은 길이었다. 그러다 시신

들을 노스 묘지로 옮기게 되면서, 옛 가족 묘지들을 가로질러 길을 낼 수 있게 되자 비로소 직선으로 곧게 펴진 것이었다.

처음에는 서쪽 벽이 도로에서 가파른 잔디 언덕 위로 20피트쯤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독립 전쟁 무렵에 도로가 넓어지면서 그 사이의 공간 대부분이 잘려 나갔다. 그 과정에서 건물의 기초가 드러나는 바람에 벽돌로 된 지하실 벽을 새로 쌓아야만 했다. 덕분에 깊숙한 지하실은 새로 생긴 공공 도로와 맞닿게 되었고, 지상에는 문 하나와 창문 하나가 생겨났다. 백 년 전 보도가 설치될 때 남은 공간마저 모두 사라졌다. 따라서 포(Poe)가 산책하며 보았던 모습은, 보도와 높이가 같은 칙칙한 회색 벽돌이 수직으로 솟아 있고, 그 위로 10피트 높이에서 오래된 판자 지붕을 얹은 본체의 육중한 몸체가 나타나는 풍경뿐이었을 것이다.

[삽화: 내가 살짝 열어두고 떠난, 베니핏 가의 그 끔찍한 문]

농장처럼 넓게 펼쳐진 대지는 언덕 위로 아주 깊숙이 이어져, 거의 휘턴 가까이 닿아 있었다. 베니핏 가와 맞닿은 집 남쪽 부지는 당연히 현재의 보도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곳은 이끼 낀 축축한 돌벽이 둘러싼 테라스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벽에는 가파르고 좁은 계단이 뚫려 있었다. 계단을 따라 협곡 같은 벽 사이를 지나 안쪽으로 들어가면, 잡초가 무성한 잔디밭과 습기로 얼룩진 벽돌 산책로, 그리고 방치된 정원이 나타났다. 정원에는 부서진 시멘트 화분과 뒤틀린 나뭇가지 삼각대에서 떨어진 녹슨 주전자 같은 잡동사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러한 풍경은 부서진 채광창과 썩어가는 이오니아식 벽

주, 그리고 벌레 먹은 삼각형 페디먼트가 달린, 풍파에 깎인 앞문을 더욱 초라하게 돋보이게 했다.

* * * * *

내가 젊은 시절 그 기피되는 집에 대해 들었던 말은, 그곳에서 놀라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갔다는 사실뿐이었다. 집을 지은 지 20년쯤 지나 원래 주인들이 떠난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했다. 지하실의 습기와 곰팡이, 집 안 전체에 감도는 병적인 악취, 복도를 타고 흐르는 외풍, 혹은 우물과 펌프에서 나오는 물의 상태 때문일 것이라고들 했다. 분명 건강에 해로운 환경이었음은 틀림없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믿음을 얻은 이야기는 딱 거기까지였다.

오직 고미술품 수집가인 삼촌, 엘리후 휘플 박사의 수첩만이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내게 상세히 보여주었다. 그 수첩에는 옛 하인들과 가난한 이들 사이에서 민간 전설처럼 떠돌던, 훨씬 더 어둡고 모호한 추측들이 담겨 있었다. 그 추측들은 결코 멀리 퍼지지 않았으며, 프로비던스가 현대적인 인구로 북적이는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대부분 잊히고 말았다.

사실을 말하자면, 지역 사회의 상식적인 이들은 그 집을 진정으로 '유령이 나오는 집'이라 여긴 적이 없었다. 쇠사슬이 덜컹거린다거나, 찬 바람이 몰아친다거나, 등불이 꺼지거나, 창문에 얼굴이 비친다는 식의 떠도는 소문도 없었다. 극단적인 이들은 가끔 그 집이 '불운하다'고 말하곤 했으나, 그들의 주장도 거기까지였다.

정말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은, 그곳에서 죽어 나간 사람이 무시무시할 정도로 많았다는 점이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그들은 그곳에서 '죽어 있었다'. 60여 년 전 기이한 사건들이 일어난 이후, 그 집은 도저히 세를 놓을 수 없을 만큼 기피 대상이 되어 버려진 상태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죽은 원인이 모두 단 하나의 사건 때문인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들의 생명력이 서서히, 그리고 은밀하게 갇아먹히는 듯한 양상이었다. 사람들은 각자 타고난 허약함이 있다면, 그 증세가 평소보다 훨씬 빠르게 나타나며 목숨을 잃었다. 죽지 않은 이들조차 저마다의 정도로 빈혈이나 폐결핵 증세를 보였고, 때로는 정신 기능이 쇠퇴하기도 했다. 이 모든 현상은 그 건물이 결코 건강한 환경이 아님을 방증했다. 덧붙여 말하자면, 인근의 다른 집들은 이러한 해로운 기운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 보였다.

내가 집요하게 캐묻는 바람에 삼촌이 결국 그 기록들을 보여주게 되기 전까지, 내가 알고 있던 사실은 이 정도였다. 그 기록을 본 뒤에야 우리 둘은 그 끔찍한 조사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었다.

어린 시절, 그 기피되는 집은 비어 있었다. 높은 테라스식 마당에는 새 한 마리 머물지 않았고, 메마르고 뒤틀린 흉측한 고목들과 길게 자란 기묘하고 창백한 풀들, 그리고 악몽처럼 일그러진 잡초들만이 가득했다. 우리 소년들은 그곳을 휘젓고 다니곤 했다. 나는 지금도 그때 느꼈던 어린 날의 공포를 기억한다. 그것은 불길한 식물들이 풍기는 기괴한 생경함 때문만이 아니었다. 낡아빠진 집에서 풍겨 나오는 기묘한 분

위기와 악취, 그리고 전율을 찾아 들어가곤 했던 그 열린 앞문 때문이기도 했다.

작은 유리창들은 대부분 깨져 있었고, 위태로운 벽판과 흔들리는 내부 덧창, 벗겨진 벽지, 떨어져 나가는 회반죽, 삐걱거리는 계단, 그리고 남아 있는 부서진 가구 조각들 위로는 이름 모를 황량함이 감돌았다. 먼지와 거미줄은 그 공포를 한층 더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는 사다리에 자진해서 발을 올리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정말 용감한 것이리라. 다락방은 서까래가 길게 뻗은 거대한 공간이었는데, 박공 끝에 달린 작은 창문들이 깜빡이며 겨우 빛을 비출 뿐이었다. 그곳은 상자들과 의자, 물레 같은 잔해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고, 무궁한 세월 동안 쌓인 먼지는 그 물건들을 뒤덮어 괴상하고 지옥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결국, 그 집에서 가장 끔찍한 곳은 다락방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가장 강렬한 거부감을 불러일으킨 곳은 눅눅하고 습한 지하실이였다. 그곳은 거리 쪽에서 보면 지상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고, 번잡한 보도와는 얇은 문과 창문이 뚫린 벽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있을 뿐이었음에도 기묘한 불쾌감을 풍겼다. 우리는 그곳을 유령처럼 흘린 듯이 배회해야 할지, 아니면 영혼과 정신을 지키기 위해 멀리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우선 그 집 특유의 악취가 가장 심하게 진동하는 곳이 바로 그곳이었다. 게다가 비가 내리는 여름날이면 딱딱한 흙바닥에서 가끔씩 돌아나는 하얀 곰팡이 덩어리들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 곰팡이들은 마당

에 자라는 식물들을 기괴하게 닮아 있었는데, 그 윤곽이 참으로 소름 끼쳤다. 그것들은 마치 독버섯이나 인디언 파이프(Indian-pipes)를 혐오스럽게 흉내 낸 듯한 형상이었으며, 그 어떤 곳에서도 본 적 없는 기이한 모습이었다. 곰팡이는 금세 부패하더니 어느 단계에 이르면 희미한 인광을 내뿜기도 했다. 그래서 밤늦게 지나가던 행인들은 악취가 풍기는 깨진 창문 너머로 마녀의 불꽃이 일렁인다고 말하곤 했다.

우리는 할로윈의 광기 어린 기분에 휩싸였을 때조차 이 지하실을 밤에 방문하지는 않았다. 다만 낮에 방문했을 때, 특히 날이 어둡고 습한 날이면 지하실에서 배어 나오는 인광을 감지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종종 무언가 더 미묘한 것을 느낀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아주 기이한 것이었으나, 기껏해야 무언가를 암시하는 수준에 불과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흙바닥 위에 나타나는 구름 같은 백색 무늬다. 지하 주방의 거대한 벽난로 근처에는 드문드문 곰팡이가 자라나 있었는데, 우리는 그 사이로 희미하게 움직이는 듯한 곰팡이나 초석의 퇴적물을 가끔 발견하곤 했다. 가끔 그 무늬가 몸을 웅크린 사람의 형상과 기분 나쁠 정도로 닮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물론 대개는 그런 유사성이 없었으며, 백색의 퇴적물 자체가 아예 보이지 않을 때도 많았다.

환각이 유독 강렬하게 느껴지던 어느 비 오는 오후였다. 게다가 질산염 무늬 위로 얇고 노르스름하게 일렁이는 기운이 피어올라, 입을 벌린 듯한 벽난로를 향해 흘러가는 것을 본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나는 삼촌에게 그 일을 꺼냈다. 삼촌은 나의 이 기묘한 상상을 듣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회상에 잠긴 듯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민간에 떠도는 거친 옛이야기들 중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다. 거대한 굴뚝에서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구울이나 늑대 같은 형상을 띠다거나, 느슨해진 기초석 사이로 지하실까지 파고든 구불구불한 나무뿌리들이 기괴한 윤곽을 드러낸다는 식의 이야기 말이다.

삼촌이 그 기괴되는 집에 관해 수집한 기록과 자료들을 내 앞에 내놓은 것은 내가 성인이 된 이후의 일이었다. 휘플 박사는 구시대의 방식대로 사고하는, 이성적이고 보수적인 의사였다. 그는 그 장소에 깊은 관심을 두면서도, 어린 마음이 비정상적인 현상에 매료되는 것을 경계했다. 박사 본인은 그저 그 건물의 위치와 상태가 유독 불결할 뿐이라고 생각했기에, 이를 초자연적인 현상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그 집이 지닌 기묘한 풍경이 자신의 호기심을 자극했듯, 소년의 상상력 속에서는 온갖 끔찍하고 괴기스러운 환상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 의사는 독신이었다. 백발에 면도를 깔끔하게 한, 구식 풍모의 신사였으며 지역의 저명한 역사학자이기도 했다. 그는 시드니 S. 라이더나 토머스 W. 비크넬처럼 전통을 수호한다는 명목으로 논쟁을 일으키는 이들과 자주 맞서 싸우곤 했다. 그는 문 두드림용 노커와 철제 난간이 달린 계단이 있는 조지아 양식의 저택에서 하인 한 명과 함께 살았다. 저택은 노스 코트 가의 가파른 언덕 위에 기묘하게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옆으로는 오래된 벽돌 법원과 식민지 관사가 있었다. 그의 조부는 1772년 국왕 폐하의 무장 스쿠너호 가스피(Gaspee)호를 불태운

유명한 사략선장, 휘플 선장의 사촌이었다. 또한 그의 조부는 1776년 5월 4일, 주 의회에서 로드아일랜드 식민지의 독립에 찬성표를 던진 인물이기도 했다.

곰팡내 나는 흰색 패널로 마감된, 천장이 낮고 습한 서재 안에는 그의 가문이 남긴 유물과 기록들이 가득했다. 무거운 조각이 새겨진 벽난로 선반과 덩굴식물로 가려진 작은 격자창이 있는 그곳에는, 베니핏가의 그 기피되는 집에 관한 의심스러운 언급들이 담긴 기록도 많았다. 그 재앙의 장소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다. 베니핏가가 법원 바로 위, 초기 정착민들이 올라갔던 가파른 언덕을 따라 지형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나의 끈질긴 줄라댐과 성숙해진 나이가 삼촌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침내 내가 갈구하던 그 축적된 지식들이 내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 기록은 참으로 기이했다. 어떤 대목은 장황하고 통계적이었으며, 또 어떤 부분은 지루할 정도로 가계도를 나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끊이지 않는 공포의 실타래가 흐르고 있었다. 음산하고도 끈질긴 공포, 그리고 초자연적인 악의가 서린 실타래였다. 그것은 인자한 박사님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겠지만, 내게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왔다. 서로 떨어진 사건들이 기묘하게 맞물려 있었고, 겉보기에는 무관해 보이는 세부 사항들 속에는 끔찍한 가능성들이 광산처럼 매장되어 있었다. 내 안에서는 새로운, 그리고 타오르는 듯한 호기심이 솟구쳤다. 어린 시절의 호기심 따위는 비교조차 되지 않을 만큼 미성숙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첫 번째 계시를 접한 뒤 나는 철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나와 내 소중한 이들에게 비극적인 결말을 안겨준 그 전율 어린 탐색에 까지 이르게 되었다. 결국 나의 숙부께서 내가 시작한 수색에 동참하겠다고 고집하셨고, 그 집에서 보낸 어느 밤 이후로 숙부는 나와 함께 돌아오지 못하셨다. 평생을 명예와 미덕, 품격과 자애, 그리고 학식으로 만 채워온 그 온화한 영혼이 곁에 없으니 나는 너무나도 외롭다. 나는 포가 사랑했던 장소인 세인트 존스 교회 묘지에 숙부의 기억을 기리는 대리석 유골함을 세워 두었다. 언덕 위 거대한 버드나무들이 숲을 이룬 그 은밀한 곳, 백발이 성성한 교회 건물과 베니핏 가의 집들, 그리고 독벽 사이로 무덤과 비석들이 조용히 웅기종기 모여 있는 그곳에 말이다.

수많은 날씨가 미로처럼 얽힌 그 집의 역사를 살펴보았으나, 집을 지을 당시의 정황이나 그 집을 세운 변창하고 명망 높은 가문의 기록 어디에서도 불길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재앙의 기운이 감돌고 있었으며, 그 기운은 곧 불길한 징조로 번져 나갔다. 삼촌이 정성껏 정리한 기록은 1763년 집을 지은 시점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다.

기록에 따르면, 이 기피되는 집의 첫 거주자는 윌리엄 해리스와 그의 아내 로비 텍스터였다. 그들에게는 1755년생 엘카나, 1757년생 애비게일, 1759년생 윌리엄 주니어, 그리고 1761년생 루스라는 자녀들이 있었다. 해리스는 서인도 제도 무역에 종사하는 유력한 상인이자 선원이었으며, 오바다이하 브라운과 그의 조카들이 운영하는 상단과 연계되어 있었다. 1761년 브라운이 사망한 후, 새로 결성된 '니콜라스 브라운 컴퍼니'는 해리스를 프로비던스에서 건조한 120톤급 브리그선

'프루던스 호'의 선장으로 임명했다. 덕분에 그는 결혼 후 줄곧 꿈꿔왔던 새 저택을 세울 수 있었다.

그가 선택한 장소는 최근에 도로를 곧게 펴서 새롭게 떠오르는 명소인 백 스트리트의 일부였다. 이곳은 인파로 북적이는 칩사이드 위쪽 언덕 옆을 따라 길게 뻗어 있었다. 입지는 더할 나위 없이 완벽했고, 건물 또한 그 위치에 걸맞은 위용을 갖추고 있었다. 적당한 재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최선의 집이었다. 해리스는 다섯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서둘러 이사했다. 그 집 가족들은 다섯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아이는 12월에 태어난 아들이었으나, 태어나자마자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 집에서 살아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일은 이후 150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다.

다음 해 4월, 아이들에게 병이 돌기 시작했다. 애비게일과 루스는 그 달이 지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조브 아이브스 의사는 이를 유아 열병이라 진단했으나, 다른 이들은 그저 몸이 서서히 말라가며 쇠약해지는 증상일 뿐이라고 말했다. 어쨌든 병은 전염성이 있는 듯했다. 두 하인 중 한 명이었던 해나 보웬이 그해 6월에 그 병으로 죽었기 때문이다. 다른 하인인 엘리 라이데슨은 줄곧 기운이 없으며 불평을 늘어놓았다. 그는 원래 레호보스의 아버지 농장으로 돌아가려 했으나, 해나의 후임으로 고용된 메히타벨 피어스에게 갑작스레 마음을 빼앗기는 바람에 머물게 되었다. 엘리는 이듬해에 죽었다. 참으로 비극적인 해였다. 그해에는 윌리엄 해리스 본인마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직업상 마르티니크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했는데, 그곳의 기후 탓에 몸이 이미 많이 쇠약해진 상태였다.

미망인이 된 로비 해리스는 남편의 죽음이 준 충격에서 결코 회복되지 못했다. 2년 뒤 장남 엘카나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이성도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1768년, 그녀는 가벼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그 후로는 집 위층에만 갇혀 지내야 했다. 가문의 살림을 맡기 위해 언니인 머시 텍스터가 집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머시는 뼈대가 굵고 힘이 센 수수한 여인이었으나, 그녀가 집에 들어온 뒤로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졌다. 머시는 불행한 동생을 지극정성으로 돌보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조카 윌리엄에게도 각별한 애정을 쏟았다. 윌리엄은 튼튼했던 영아 시절과 달리, 이제는 병약하고 비쩍 마른 소년이 되어 있었다.

그해에 하녀 메히타벨이 죽었고, 다른 하인인 프리저브드 스미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도 없이 떠나버렸다. 적어도 제대로 된 설명은 없었다. 그저 이곳의 냄새가 싫다는 불평과 괴상한 소문들만 남겼을 뿐이다.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일곱 명의 죽음과 한 건의 광기 어린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자,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기괴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머시는 한동안 일손을 구하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타지에서 새로운 하인들을 데려왔다. 한 명은 지금의 엑서터 마을이 된 노스 킹스타운 출신의 침울한 여인 앤 화이트였고, 다른 한 명은 보스턴에서 온 유능한 사내 제나스 로우였다.

* * * * *

불길한 소문들에 구체적인 형체를 부여한 것은 처음엔 앤 화이트였다. 머시는 누스넥 힐 근처 사람을 고용하지 말았어야 했다. 그 외딴 오

지 마을은 그때나 지금이나 기괴하고 불편한 미신이 뿔속까지 박힌 곳이었으니까. 불과 1892년에도 엑서터의 한 공동체는 공공의 보건과 평화를 해치는 어떤 '방문객'을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신을 파헤쳐 심장을 의식적으로 태워버린 적이 있었다. 그렇다면 1768년 무렵 그 지역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어떠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만하다. 앤의 입술은 해로운 소문을 퍼뜨리기에 지나치게 분주했고, 결국 몇 달 지나지 않아 머시는 그녀를 해고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뉴포트 출신의 충직하고 상냥한 여인, 마리아 로빈스를 새로 들였다.

그사이 불쌍한 로비 해리스는 광기에 사로잡혀 가장 끔찍한 형태의 꿈과 망상을 입 밖으로 내뱉었다. 때때로 그녀의 비명은 견디기 힘들 정도였고, 오랫동안 소름 끼치는 말들을 비명처럼 질러댄 탓에 아들은 신축 대학 건물 근처의 프레스비테리언 레인에 사는 사촌 펠레그 해리스의 집에서 임시로 지내야만 했다. 아이는 그곳에 다녀온 뒤에는 상태가 나아지는 듯 보였다. 머시 부인이 선의를 지닌 만큼 현명하기까지 했더라면, 아이를 펠레그의 집에 영구히 머물게 했을 것이다.

해리스 부인이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대체 무엇을 외쳐냈는지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조차 확신하지 못한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전해지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터무니없어서 그 황당함만으로 스스로 신빙성을 잃을 정도다. 프랑스어 기초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한 여인이 거칠고 상스러운 프랑스어 방언으로 몇 시간씩 소리를 질렀다거나, 혹은 감시를 받으며 혼자 있는 상태였음에도 누군가 자신을 뺨히 쳐다보며 물어뜯고 씹어댄다고 미친 듯이 호소했다는 말은 분명 황당하게 들릴 것이다.

1772년, 하인 제나스가 죽었을 때 해리스 부인은 그 소식을 듣고 평소의 그녀라면 도저히 보일 수 없는 충격적일 만큼 즐거운 웃음을 터뜨렸다. 이듬해 그녀 자신도 세상을 떠났으며, 북쪽 묘지의 남편 곁에 안치되었다.

1775년 영국과의 분쟁이 터지자, 윌리엄 해리스는 고작 열여섯 살의 어린 나이와 허약한 체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린 장군이 이끄는 관찰군에 입대하는 데 성공했다. 그날 이후 그의 건강과 명성은 꾸준히 상승했다. 1780년, 그는 앤젤 대령 휘하의 로드아일랜드군 소속 대위로서 뉴저지에 머물던 중 엘리자베스타운 출신의 피비 헛필드를 만나 결혼했다. 이듬해 명예 제대를 한 그는 그녀를 프로비던스로 데려왔다.

젊은 군인의 귀환이 오로지 기쁨만을 가져다준 것은 아니었다. 집은 다행히 여전히 온전한 상태였고, 거리 또한 폭이 넓어진 데다 이름도 백 스트리트에서 베니핏 가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머시 텍스터의 한 때 건장했던 체구는 슬프고도 기이하게 쇠락해 있었다. 그녀는 이제 구부정한 자세로 초라하게 변해버렸고, 목소리는 공허했으며 안색은 불안할 정도로 창백했다. 유일하게 남은 하녀 마리아 역시 기묘할 정도로 그녀와 닮은 모습이었다. 1782년 가을, 피비 해리스가 사산한 딸을 낳았고, 이듬해 5월 15일, 머시 텍스터는 유용하고도 엄격하며 도덕적이었던 삶을 뒤로하고 세상을 떠났다.

자신이 머무는 집이 근본적으로 불길하고 해로운 곳임을 마침내 확신한 윌리엄 해리스는, 그 집을 떠나 영원히 폐쇄하기로 마음먹고 실행

에 옮겼다. 그는 새로 문을 연 골든 볼 여관에 아내와 함께 머물 임시 거처를 마련한 뒤, 그레이트 브릿지 너머로 도시가 확장되는 웨스트민스터 가에 더 훌륭하고 새로운 집을 짓기로 계획했다. 1785년 그곳에서 그의 아들 듀티가 태어났고, 가족은 그곳에서 계속 거주했다. 그러나 상업의 확장이 그들을 밀어내면서, 가족은 다시 강을 건너 언덕 너머에 있는 앤젤 가로 이주해야 했다. 그곳은 신흥 주거 지역인 이스트 사이드였으며, 1876년 고(故) 아처 해리스가 화려하면서도 기괴한 프랑스식 지붕을 가진 저택을 지은 곳이기도 하다. 윌리엄과 피비는 모두 1797년 황열병 유행으로 목숨을 잃었으나, 듀티는 펠레그의 아들인 사촌 래스본 해리스의 손에 자랐다.

래스본은 실용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윌리엄이 집을 비워두길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니핏 가의 집을 임대했다. 그는 피후견인인 소년의 재산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다. 세입자가 끊임없이 바뀌게 만든 죽음과 질병들, 혹은 사람들이 그 집을 향해 품는 혐오감이 점점 커져가는 것 따위에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1804년, 당시 수그러들던 열병 때문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네 명의 죽음이 큰 화제가 되자 마을 의회가 그에게 유허과 타르, 그리고 장뇌(검 캠퍼)를 사용해 집을 소독하라고 명령했을 때도, 그는 그저 짜증이 났을 뿐일 것이다. 의회 측은 그 집에서 열병의 냄새가 난다고 말했다.

듀티 본인은 그 집에 대해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는 자라서 사략선원이 되었고, 1812년 전쟁 당시 카혼 선장이 이끄는 비질런트 호에서 훌륭한 전공을 세우며 복무했기 때문이다. 그는 무사히 돌아와 1814년에 결혼했다. 그리고 1815년 9월 23일, 그 잊지 못할 밤에 그는

아버지가 되었다. 그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 만의 바닷물이 마을 절반을 집어삼킨 날이었다. 당시 거대한 슬루프 한 척이 웨스트민스터 가까이 떠밀려 올라왔는데, 그 배의 돛대가 해리스가의 창문에 거의 닿을 듯이 맞닿아 있었다. 그것은 마치 새로 태어난 아들 웰컴이 바다 사나이의 자식임을 상징적으로 확증해 주는 듯한 모습이었다.

웰컴은 부친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으나, 1862년 프레더릭스버그 전투에서 영광스럽게 전사하며 생을 마감했다. 그와 그의 아들 아처 모두 그 기피되는 집을 그저 세를 놓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성가신 건물로만 여겼다. 아마도 관리가 안 된 노후한 건물 특유의 퀴퀴함과 병적인 악취 때문이었을 것이다. 실제로 1861년에 연쇄적인 사망 사건이 발생하며 집은 이후로 한 번도 세를 놓지 못했다. 다만 전쟁의 혼란 속에 그 사건들은 잊히고 말았다.

남계 혈통의 마지막 생존자인 캐링턴 해리스는 내가 내 경험을 들려주기 전까지, 그 집을 그저 전설이 깃든 어느 버려진, 그리고 다소 그림 같은 건물로만 알고 있었다. 그는 원래 그 건물을 허물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지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들은 뒤로는 건물을 그대로 두되, 배관 설비를 갖추어 세를 놓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세입자를 구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았다. 공포는 사라졌다.

해리스 가문의 연대기가 나에게 얼마나 큰 충격을 주었을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 기록들 속에는 내가 알던 자연계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끈질긴 악의가 도사리고 있는 듯했다. 그것은 명백히 가문이 아닌, 그 집 자체와 연결된 악이

었다. 숙부가 수집한 체계적이지 않은 자료들—하인들의 뒷소문을 받아 적은 전설, 신문 스크랩, 동료 의사들이 복사해 둔 사망 진단서 등—은 이러한 나의 인상을 더욱 확고히 해주었다.

숙부는 지칠 줄 모르는 호고가(好古家)였고 그 기피되는 집에 깊은 관심을 가졌기에, 내가 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여러 출처에서 나온 수많은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며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핵심적인 사실들을 언급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하인들의 뒷소문은 그 집의 곰팡이 피고 악취 나는 지하실이 압도적으로 거대한 악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거의 만장일치로 동의하고 있었다. 앤 화이트를 비롯한 몇몇 하인들은 지하실에 있는 주방을 아예 사용하지 않으려 했다. 또한 그곳의 나무뿌리와 곰팡이 덩어리들이 기괴하게 사람 형상이나 악마의 윤곽을 띠고 있다는, 아주 구체적인 전설도 적어도 세 가지는 존재했다.

어린 시절 내가 직접 목격했던 일들 때문에 나는 이 후자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각 사례에서 사건의 본질적인 의미는 지역 사회에 떠도는 흔한 유령 이야기들이 덧붙여지면서 상당 부분 가려져 버렸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엑서터식 미신에 사로잡힌 앤 화이트는 가장 터무니없으면서도 동시에 가장 일관된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녔다.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그 집 지하에는 반드시 흡혈귀 중 하나가 묻혀 있어야 했다. 육신의 형태를 유지한 채 살아있는 자의 피나 숨결을 먹고 사는 죽은 자들, 그 끔찍한 군단이 밤마다 포식하는 형상이나 영혼을 세상 밖으로 내보낸다

는 존재 말이다. 할머니들의 말에 따르면, 흠혈귀를 없애려면 반드시 시체를 파내어 심장을 태우거나, 적어도 그 장기에 말뚝을 박아야 한다고 했다. 앤이 지하실 밑을 뒤져야 한다고 완강하게 고집을 부린 점은 그녀가 해고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폭넓은 청중을 끌어모았다. 그 집이 실제로 과거에 묘지로 쓰였던 땅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 덕분에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더욱 쉽게 받아들였다. 그러나 내가 느낀 흥미는 단순히 그런 배경 때문만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의 이야기가 다른 기이한 사건들과 기묘할 정도로 딱 맞아떨어진다는 점이 나를 매료시켰다.

예를 들어, 앤보다 앞서 그 집에서 일했고 앤이라는 존재는 들어본 적조차 없던 하인 프레저브드 스미스는, 떠나면서 밤마다 무언가가 자신의 "숨을 빨아들인다"며 불평을 늘어놓았었다. 또한 1804년 열병으로 사망한 이들의 사망 진단서를 보면, 채드 흠킨스 박사가 발행한 기록에 네 명의 사망자 모두 원인을 알 수 없게 피가 부족했다고 적혀 있었다. 여기에 불쌍한 로비 해리스가 헛소리를 하며 남긴 모호한 문장들까지 더해진다. 그녀는 눈이 유리알처럼 흐릿하고 형체조차 불분명한 존재가 날카로운 이빨로 자신을 공격한다고 울부짖었다.

나는 근거 없는 미신을 믿지 않는 편이지만, 이 일들은 내 안에 기묘한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그 불길한 느낌은 그 기피되는 집에서 발생하는 죽음들을 다룬 두 건의 신문 기사를 접하며 더욱 짙어졌다. 하나는 1815년 4월 12일 자 《프로비던스 가제트 앤 컨트리 저널》의 기사였고, 다른 하나는 1845년 10월 27일 자 《데일리 트랜스크립트 앤 크로

니콜》의 기사였다. 두 기사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소름 끼치도록 참혹한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었다.

두 사례 모두 죽어가는 이의 모습이 끔찍하게 변했다는 점이 공통적이었다. 1815년에는 스탠퍼드라는 이름의 온화한 노부인이, 1845년에는 엘리아저 더피라는 이름의 중년 교사가 그 주인공이었다. 그들은 눈을 번뜩이며 초점 없는 눈빛으로 노려보았고, 곁을 지키던 의사의 목을 물어뜯으려 시도했다.

하지만 집의 임대료가 중단되게 만든 마지막 사례는 더욱 미스터리했다. 그 사건은 점진적인 광증을 동반한 일련의 빈혈사로 이어졌는데, 환자들은 광기에 사로잡혀 교묘한 수법으로 친척들의 목이나 손목을 그어 살해하려 했다.

때는 1860년과 1861년이었다. 나의 숙부는 막 의사로서 활동을 시작하던 시기였고, 전선으로 떠나기 전 선배 의사들로부터 그 집에 관한 이야기를 수없이 들었다. 정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점은 희생자들의 태도였다. 그 집은 악취가 진동하고 사람들이 모두 기피하는 탓에 이제는 그 누구에게도 임대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희생자들은 대개 무지한 이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도저히 배운 적이 없을 법한 프랑스로 저주를 중얼거렸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한 세기 전의 불쌍한 로비 해리스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다. 숙부는 이 일에 깊이 마음이 움직였다. 전쟁에서 돌아온 후, 숙부는 체이스 박사와 휘트마시 박사가 직접 겪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집에 관한 역사적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숙부가 이

주제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해 왔는지, 그리고 나의 관심에 얼마나 기뻐하는지는 눈에 보일 정도였다. 나의 관심은 편견 없고 공감 어린 태도였기에, 숙부는 다른 이들이라면 그저 비웃고 말았을 문제들을 나와 함께 논할 수 있었다. 숙부의 상상력이 나만큼까지 나아가지는 않았으나, 그는 그 장소가 지닌 기괴한 상상력의 잠재력이 매우 드물며, 그 로테스크하고 섬뜩한 분야의 영감으로서 기록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느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모든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나는 즉시 기존의 증거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더 많은 자료를 수집해 나갔다. 1916년 사망하기 전까지 그 집의 주인이었던 노년의 아처 해리스와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또한 그와 아직 살아 있는 누이 앨리스로부터, 나의 삼촌이 수집했던 가문의 모든 기록이 사실임을 확인받았다.

하지만 그 집이 프랑스나 프랑스어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묻자, 그들은 나만큼이나 솔직하게 당혹스러워하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답했다. 아처는 아는 것이 없었고, 해리스 양이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곤 할아버지인 듀티 해리스가 들었다는 오래된 암시가 약간의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뿐이었다.

그 늙은 선원은 아들 웰컴이 전사하고 2년 뒤에야 세상을 떠났는데, 정작 본인은 그 전설을 알지 못했다. 다만 그는 아주 어릴 적 유모였던 노파 마리아 로빈스를 기억해 냈다. 마리아는 불행한 여인 로비 해리스가 생애 마지막 날들에 자주 내뱉던 프랑스어 헛소리에 기묘한 의미를

부여할 만한 무언가를, 어두운 눈빛으로 이미 알고 있었던 듯했다. 마리아는 1769년부터 1783년 가문이 이사를 가기 전까지 그 기피되는 집에 머물며 머시 텍스터가 죽는 모습까지 지켜보았던 인물이었다. 마리아는 어린 듀티에게 머시의 임종 순간에 있었던 다소 기이한 상황에 대해 넌지시 암시를 준 적이 있었으나, 듀티는 그것이 무언가 이상했다는 기억 외에는 곧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다.

게다가 그 손녀 역시 그 사실을 겨우 기억해 낼 뿐이었다. 그녀와 그녀의 오빠는 그 집에 그리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현재의 주인인 아치의 아들 캐링턴이 그 집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고, 나는 나의 경험을 겪은 뒤 그와 대화를 나누었다.

해리스 가문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샅샅이 뒤진 뒤, 나는 마을의 초기 기록과 토지 문서로 관심을 돌렸다. 그 열의는 예전에 삼촌이 같은 작업을 하며 가끔 보여주었던 것보다 훨씬 더 집요하고 날카로웠다. 내가 원한 것은 1636년 정착 초기부터 이 땅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만약 데이터를 보충해 줄 나라간셋 인디언의 전설이라도 발굴할 수 있다면, 그 이전의 역사까지도 파헤치고 싶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나는 이 땅이 원래 존 트로크모턴에게 할당되었던 긴 형태의 주거용 부지 중 하나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강가의 타운 스트리트에서 시작해 언덕을 넘어 오늘날의 호프 스트리트와 대략 일치하는 선까지 길게 뻗어 있던, 그와 유사한 구획들이 아주 많았다. 물론 트로크모턴의 부지는 이후 여러 구역으로 세분화되었다. 나는 나

중에 백 가(Back Street)나 베니핏 가(Benefit Street)가 지나가게 될 구역을 추적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소문대로 그곳은 과거 트로크모턴 가문의 묘지였다. 하지만 기록을 더 면밀히 검토해 보니, 묘지들은 아주 오래전에 포터킷 웨스트 로드에는 있는 노스 버리얼 그라운드로 모두 옮겨진 상태였다.

그러다 갑자기, 아주 희박한 확률로 무언가를 발견했다. 그 기록은 주요 문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자칫하면 그냥 지나칠 뻔했으나, 다행히 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이번 사건의 기묘한 양상들과도 맞아 떨어지는 것이라,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감증을 느꼈다. 1697년에 에티엔 룰레와 그의 아내에게 작은 땅을 임대했다는 기록이었다. 마침내 프랑스적 요소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그 이름은 내 기피하고도 잡다한 독서 기록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이름 자체만으로도 더 깊은 공포의 실체를 불러일으켰다.

나는 1747년에서 1758년 사이, 백 스트리트가 관통되고 일부 구간이 직선화되기 전의 지형도를 열띤 마음으로 살폈다. 그리고 반쯤 예상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지금의 그 기피되는 집이 서 있는 자리에는, 과거 룰레 부부가 단층에 다락이 딸린 작은 오두막을 짓고 그 뒤편에 공동묘지를 조성했다는 사실이었다. 게다가 묘지 이전에 관한 그 어떤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로 그 문서는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로 끝맺음되어 있었다. 나는 에티엔 룰레라는 이름이 열쇠가 되어줄 만한 지역 기록을 찾기 위해 로드아일랜드 역사 협회와 셸리 도서관을 샅샅이 뒤져야만 했다. 결국 나

는 무언가를 찾아냈다. 그것은 모호하면서도 괴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었기에, 나는 즉시 새로운 흥분과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 기피되는 집의 지하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룰레 가문은 1696년 내려갠셋만의 서쪽 해안을 따라 이스트 그리니치에서 내려와 이 마을에 정착한 것으로 보였다. 이들은 코드 출신의 위그노였는데, 프로비던스 시의회로부터 정착 허가를 받기까지 수많은 반대에 부딪쳐야 했다. 1686년 낭트 칙령이 폐지된 후 이스트 그리니치로 이주했을 때부터, 그들은 그곳에서도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며 살았다. 사람들은 그들에 대한 반감이 단순히 인종적, 민족적 편견 때문만은 아니라고 수군거렸다. 혹은 앤드로스 주지사조차 잠재우지 못한, 영국인 정착민들과 프랑스인 정착민들 사이의 토지 분쟁 때문이라는 말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열렬한 개신교 신앙—어떤 이들은 그 신앙이 지나치게 뜨겁다고 속삭였지만—과, 마을에서 사실상 쫓겨나만(灣) 아래로 내려가야 했던 그들의 명백한 고통은 마을 원로들의 동정심을 자극했다.

그리하여 이곳에서 이 이방인들은 안식처를 얻었다. 검게 그을린 에티엔 룰레는 농사보다는 기묘한 책을 읽거나 괴상한 도표를 그리는 데 더 소질이 있었는데, 마을 남쪽 타운 스트리트에 있는 퍼던 킬링하스트 부두 창고에서 서기직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얼마 후, 아마도 노년의 룰레가 죽고 난 뒤인 40년쯤 지나서인지 모를 어떤 폭동이 일어났고, 그 이후로 그 가문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았다.

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룰레 가문의 일은 뉴잉글랜드 항구 도시의 평온한 삶 속에 생생한 사건으로 남아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고 자주 회자되었다. 에티엔의 아들 폴은 성미가 고약한 사내였는데, 아마도 그의 변덕스러운 행동이 가문을 몰살시킨 그 폭동을 촉발했을 것이다. 폴은 특히나 사람들의 추측을 자아내는 대상이었다. 프로비던스가 청교도 이웃들이 겪었던 마녀사냥의 광기에 동조한 적은 없었으나, 마을 노파들은 폴의 기도가 제때 드러지는 것도 아니요, 올바른 대상을 향한 것도 아니라고 대놓고 암시하곤 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마리아 로빈스 노파가 알고 있던 전설의 토대가 되었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 전설이 로비 해리스와 그 기피되는 집의 다른 거주자들이 내뱉은 프랑스어 광기 어린 중얼거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오직 상상력이나 훗날의 발견만이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 전설을 알고 있던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이가, 나의 폭넓은 독서가 일깨워준 그 끔찍한 연결고리까지 깨닫고 있었을지 궁금해졌다. 그것은 병적인 공포의 연대기에 기록된 불길한 내용이었다. 1598년, '코드(Caude)의 자크 룰레'라는 존재가 악마 들린 자라는 죄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이후 파리 의회에 의해 화형을 면하고 정신병원에 갇히게 된 사건 말이다. 그는 늑대 한 쌍이 소년을 찢어 죽인 직후, 숲 속에서 피와 살점이 덕지덕지 붙은 모습으로 발견되었다. 당시 늑대 한 마리는 상처 하나 없이 멀어져 가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이름과 지명이 묘한 의미를 띠고 있긴 하지만, 분명 벽난로가에 둘러앉아 나누기에 적당한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프로비던스의 수다쟁이들이 이 사실을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을 리는 없다고 판단했다. 만약 그들이 알았더라면, 이름이 일치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극도로 두려워하며 격렬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들이 소곤거리던 제한적인 소문이, 결국 룰레 가문을 마을에서 지워버린 그 마지막 폭동을 앞당겼던 것은 아닐까?

* * * * *

나는 그 저주받은 장소를 점점 더 자주 찾았다. 정원의 불길한 식물들을 살피고, 건물의 모든 벽면을 조사했으며, 흙바닥인 지하실의 구석구석을 살살이 뒤졌다. 마침내 나는 캐링턴 해리스의 허락을 받아, 지하실에서 베니핏 가로 곧장 연결되는 폐쇄된 문에 맞는 열쇠를 맞추었다. 어두운 계단과 1층 홀을 거쳐 앞문으로 나가는 것보다, 외부 세계로 즉시 연결되는 통로를 확보하는 편이 나았기 때문이다.

부패한 기운이 가장 짙게 깔린 그곳에서, 나는 긴 오후 내내 무언가를 찾아 헤매며 바닥을 찢어보았다. 지상에 있는 창문들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그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었다. 잠그지 않은 문 하나만 열 어두면 바로 몇 피트 앞에 평온한 인도가 있었기에, 나는 그 문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하지만 나의 노력은 새로운 결과물을 내놓지 않았다. 그저 늘 그렇듯 우울한 곰팡이 냄새와, 불쾌한 악취의 흔적, 그리고 바닥에 남은 질소 화합물 같은 기묘한 자국들뿐이었다. 깨진 창문

너머로 지나가던 행인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나를 지켜보았을 것이라 짐작할 뿐이다.

결국 삼촌의 제안에 따라, 나는 밤에 그곳을 가보기로 결심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자정, 나는 손전등을 비추어 곰팡이 핀 바닥을 훑었다. 그곳에는 기괴한 형상들과 뒤틀린 채 반인광성을 띠는 버섯들이 가득했다. 그날 저녁, 그 장소는 묘하게도 내 기운을 꺾어 놓았기에 나는 거의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때 나는 보았다. 아니, 보았다고 생각했다. 하얗게 쌓인 침전물 사이로, 어린 시절부터 내가 의심해 왔던 그 '웅크린 형체'가 유독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그 형체는 놀라울 정도로, 그리고 전례가 없을 만큼 또렷했다. 내가 그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수년 전 비 내리던 그 오후에 나를 소스라치게 만들었던 그 얇고 노르스름하게 일렁이던 숨결이 다시금 눈앞에 나타난 듯했다.

벽난로 옆, 사람 형상을 닮은 곰팡이 위로 그것이 피어올랐다. 미세하고 병적인, 거의 빛을 내는 듯한 증기였다. 습한 공기 속에 떨리며 머물던 그 증기는 모호하면서도 충격적인 형상을 서서히 드러내더니, 이내 흐릿한 부패의 흔적만을 남긴 채 거대한 굴뚝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뒤로는 악취가 길게 따라붙었다.

그것은 참으로 끔찍했다. 그 장소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사실들을 떠올리면 공포는 더욱 배가되었다. 나는 도망치는 대신 그 형체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런데 지켜보는 내내, 그것 역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할 것만 같은 눈동자들이 나를 탐욕스럽게 훑고 있었다.

삼촌에게 이 일을 이야기하자 삼촌은 크게 동요했다. 긴장감이 감도는 한 시간 동안 고민하던 삼촌은 결국 단호하고도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이 문제의 중요성과 우리가 처한 상황을 신중히 따져본 삼촌은, 우리 둘이 함께 그 곱팡이로 저주받은 귀귀한 지하실에서 밤을 지새우며 맞서 싸워보자고 제안했다. 만약 가능하다면, 이 집의 공포를 완전히 없애버리자는 것이었다.

1919년 6월 25일 수요일,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에 대한 추측은 일절 담지 않은 채 캐링턴 해리스에게 정식으로 통보한 뒤, 삼촌과 나는 그 기피되는 집으로 향했다. 우리는 캠핑용 의자 두 개와 접이식 침대, 그리고 무게가 나가고 구조가 복잡한 몇 가지 과학 장비들을 챙겨갔다. 낮 동안 우리는 지하실에 이 장비들을 내려놓고 창문은 종이로 가려두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첫 번째 밤샘 감시를 위해 다시 돌아올 계획이었다. 지하실에서 1층으로 이어지는 문은 잠가 두었다. 지하실 바깥쪽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도 따로 챙겼기에, 비밀리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마련한 이 값비싸고 정밀한 장비들을 밤샘 감시가 길어지더라도 며칠 동안은 안심하고 두고 올 수 있었다. 우리의 계획은 밤늦게까지 함께 깨어 있다가, 새벽이 올 때까지 두 시간씩 교대로 혼자 감시를 이어가는 것이었다. 내가 먼저 감시를 맡고 그다음 삼촌이 맡기로 했으며, 감시하지 않는 사람은 침대에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우리 삼촌은 브라운 대학교 실험실과 크랜스톤 가 무기고에서 장비들을 구해왔고, 우리의 모험을 본능적으로 진두지휘했다. 삼촌이 보여준 타고난 지도력은 여든한 살 노인이 지닌 잠재적 활력과 회복력이 얼마나 경이로운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였다. 엘리후 휘플은 의사로

서 평소 설파하던 위생 수칙을 스스로 엄격히 지키며 살아왔기에, 나중에 벌어진 그 사건만 아니었다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정정하셨을 것이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하는 사람은 캐링턴 해리스와 나, 단 두 명뿐이었다. 해리스는 그 집의 주인이자, 그 집에서 무엇이 빠져나갔는지 알 권리가 있는 사람이었기에 나는 그에게 사실을 말해야만 했다. 게다가 우리는 탐사를 떠나기 전 이미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기에, 삼촌이 떠난 뒤 해리스가 상황을 이해하고 대중에게 꼭 필요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나를 도와줄 것이라 믿었다. 해리스는 안색이 창백해졌지만, 나를 돕기로 동의했다. 그리고 이제는 집을 임대해도 안전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비가 내리던 그 밤, 우리가 감시를 하며 전혀 긴장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 과장이 될 것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미신을 믿는 부류는 아니었다. 하지만 과학적 연구와 성찰을 통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다. 우리가 아는 3차원의 우주는 물질과 에너지로 이루어진 거대한 코스모스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 수많은 신뢰할 만한 출처에서 모인 압도적인 증거들은 거대한 힘을 지닌 어떤 존재가 끈질기게 살아있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리고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그 존재는 유독 악의적이었다.

우리가 실제로 흡혈귀나 늑대인간의 존재를 믿었다고 말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한 일반화일 것이다. 그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표현하는

편이 옳다. 우리는 생명력과 희박한 물질이 결합하여 나타나는, 아직 분류되지 않은 낯선 변이의 가능성을 부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존재들은 다른 차원의 단위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에 3차원 공간에서는 아주 드물게 나타난다. 하지만 우리 차원의 경계와 충분히 맞닿아 있기에 때때로 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한다. 적절한 관점을 갖추지 못한 우리로서는, 그들이 보여주는 현상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요컨대, 그 기피되는 집에는 무언가 잔류하는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이 명백한 증거들을 통해 내 삼촌과 나에게 전달되었다. 그 영향력은 이백 년 전 정착했던 불길한 프랑스 이주민들 중 누군가에게서 비롯된 것이었으며, 원자나 전자의 움직임을 다스리는 희귀하고 미지의 법칙을 통해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루레 가문이 초자연적인 존재들과 비정상적인 친밀함을 지녔다는 사실 또한 기록된 역사로 증명되는 듯했다. 그 존재들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오직 혐오와 공포만을 불러일으키는 어두운 영역이었다. 그렇다면, 1730년대에 일어났던 그 폭동이 불길한 폴 루레를 포함한 가문 구성원 중 누군가의 병적인 뇌 속에 특정한 운동 패턴을 각인시킨 것은 아니었을까. 그 패턴은 군중에게 살해당해 매장된 육신을 넘어 모호하게 살아남았으며, 침입해오는 마을 사람들을 향한 광기 어린 증오가 만들어낸 원래의 힘의 선을 따라, 다차원적인 공간 속에서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상대성 이론과 원자 내 작용을 포함하는 새로운 과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존재가 물리적 혹은 생화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형체가 있든 없든, 물질이나 에너지로 이루어진 이질적인 핵을 충

분히 상상해 볼 수 있다. 그것은 다른 생명체의 생명력이나 신체 조직, 체액을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혹은 비물질적인 방식으로 조금씩 빼앗아 가며 생명을 유지한다. 때로는 그 생명체 내부로 파고들고, 때로는 그 생명체의 구조와 완전히 하나로 뒤섞이기도 한다. 이 존재는 적극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낼 수도 있고, 그저 생존을 위한 맹목적인 본능에 따라 움직일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이러한 괴물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에서 반드시 벗어난 이단이자 침입자일 수밖에 없다. 세상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이성을 지키려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괴물을 뿌리 뽑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마땅하다.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든 것은, 우리가 그 존재와 마주하게 될 때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누구도 그것을 본 적이 없었으며, 그것을 확실히 느꼈다는 이조차 거의 없었다. 그것은 물질의 영역을 벗어난 천상의 형태, 즉 순수한 에너지일 수도 있었다. 혹은 부분적으로는 물질적일 수도 있었다. 고체나 액체, 기체, 혹은 입자가 거의 없는 희박한 상태로 제멋대로 변할 수 있는, 정체를 알 수 없고 모호한 가소성의 덩어리일지도 몰랐다. 오래된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바닥의 사람 형상을 닮은 곰팡이 자국이나 황색 증기의 형태, 그리고 뒤틀린 나무뿌리의 곡선은 모두 그것이 인간의 형상과 아주 희미하게나마 연관이 있음을 암시했다. 하지만 그러한 유사성이 얼마나 대표적인 모습인지, 혹은 얼마나 영구적인 것인지는 그 누구도 확신할 수 없었다.

우리는 그것에 맞서기 위해 두 가지 무기를 준비했다. 하나는 강력한 축전지로 작동하며 특수한 차폐막과 반사경을 갖춘, 대형 크룩스관이었다. 만약 그것이 실체가 없어 격렬한 파괴적 에테르 복사로만 대항할 수 있는 존재라면 이 장비가 필요할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세계 대전에서 사용되던 종류의 군용 화염방사기 한 쌍이었다. 만약 그것이 어느 정도 물질적 형태를 띠어 기계적인 파괴가 가능하다면 이 장비가 쓰일 터였다. 미신을 믿는 엑서터의 시골뜨기들처럼, 우리 역시 만약 태워 없앨 수 있는 심장 같은 것이 존재한다면 그것을 통째로 태워버릴 각오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이 공격적인 장치들을 지하실에 설치했다. 침대와 의자, 그리고 벽난로 앞의 특정 지점을 고려하여 세심하게 위치를 잡았다. 참고로 말하자면, 가구와 장비들을 배치할 때만 해도 곰팡이가 기묘한 형상을 띠며 피어난 그곳은 희미하게 보일 뿐이었다. 그날 저녁, 본격적인 밤샘 감시를 위해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순간 나는 내가 그 곰팡이의 형상을 그토록 뚜렷하게 본 적이 있었나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이내 전해 내려오는 전설들을 떠올리며 의구심을 떨쳐냈다.

우리의 지하실 밤샘 감시는 일광 절약 시간제 기준 밤 10시에 시작되었다. 감시가 계속되었지만, 별다른 진전이 보일 기미는 없었다. 비바람에 시달리는 바깥 가로등의 희미한 빛이 스며들고, 지하실 안의 혐오스러운 버섯들이 내뿜는 가냘픈 인광이 어둠을 밝혔다. 그 빛에 드러난 벽면은 회철의 흔적조차 모두 사라진 채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돌벽이었다. 눅눅하고 악취가 진동하며 곰팡이 냄새가 뻘 딱딱한 흙바닥 위에는 외설스러운 모양의 버섯들이 자라나 있었다. 한때 의자나 탁자였

을 법한 가구들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그 위로는 지하실 천장을 이루는 두껍고 육중한 판자와 대들보들이 놓여 있었다. 집의 다른 구역 아래에 있는 저장고와 방들로 이어지는 낡은 판자문, 부서진 나무 난간이 달린 허물어져 가는 돌계단, 그리고 겹게 그을린 벽돌로 된 투박하고 동굴 같은 벽난로가 보였다. 녹슨 철 조각들이 박힌 벽난로에서는 한때 갈고리와 화로 받침, 꼬챙이, 화로 거치대, 그리고 더치 오븐을 넣는 문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이 모든 것과 더불어, 우리가 가져온 초라한 간이침대와 캠핑 의자, 그리고 무겁고 복잡하게 생긴 파괴용 장비들이 그곳에 있었다.

이전의 탐사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리로 통하는 문을 잠그지 않은 채 두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날 경우를 대비해, 즉시 도망칠 수 있는 실질적인 퇴로를 확보해 둔 것이다. 우리가 밤마다 그곳에 머물다 보면 그곳에 숨어 있는 사악한 존재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 생각했다. 일단 그 존재를 충분히 확인하고 관찰할 수만 있다면, 미리 준비해 온 수단 중 하나를 사용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 존재를 불러내고 다시 잠재우는 데 얼마나 걸릴지는 전혀 알 수 없었다. 또한 이번 모험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 존재가 얼마나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고, 망설임 없이 단둘이서 이 일에 뛰어들었다. 외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우리를 조롱거리로 만들 뿐이며, 어쩌면 우리의 목적 자체를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화를 나누던 우리의 마음가

짐은 그러했다. 밤이 깊어 삼촌이 점점 졸음에 겨워하자, 나는 삼촌에게 두 시간 동안 잘 수 있도록 이제 그만 누우라고 권했다.

깊은 밤, 홀로 앉아 있는 동안 공포와 비슷한 무언가가 나를 서늘하게 훑고 지나갔다. 혼자라고 말하긴 했지만, 잠든 이의 곁을 지키는 사람은 사실 진정으로 혼자인 셈이다. 어쩌면 스스로 깨닫는 것보다 훨씬 더 지독한 고독 속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삼촌은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삼촌의 깊은 들숨과 날숨은 밖에서 쏟아지는 빗소리와 뒤섞였고, 집 안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멀고도 신경을 긁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그 사이를 메웠다. 이 집은 날씨가 건조할 때조차 불쾌할 정도로 습했으나, 폭풍우가 몰아치는 지금은 흡사 늪지대나 다름없었다.

나는 곰팡이 낀 불빛과 창살 사이로 거리에서 스며드는 희미한 빛에 의지해, 벽면의 험겁고 낡은 석조 구조를 살폈다. 장소의 역겨운 공기에 속이 메스꺼워질 것 같을 때면, 나는 문을 열고 거리의 끝과 끝을 바라보며 익숙한 풍경을 눈에 담고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곤 했다. 하지만 그렇게 지켜보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두려움보다 피로가 앞섰고, 나는 연신 하품을 내뱉었다.

그때 잠결에 뒤척이는 삼촌의 움직임이 내 눈에 들어왔다. 첫 한 시간의 후반부 동안 삼촌은 간이침대 위에서 몇 번이나 불안하게 몸을 뒤척였다. 하지만 지금 삼촌의 호흡은 유난히 불규칙했다. 삼촌은 이따금 한숨을 내뱉었는데, 그것은 단순한 한숨이라기보다 질식할 듯한 신음 소리에 더 가까웠다.

나는 손전등을 비추어 그를 보았으나, 그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나는 침대 반대편으로 건너가 다시 불빛을 비추며 그가 고통을 느끼는지 살폈다. 그때 목격한 광경은, 그 내용이 비교적 사소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놀라울 정도로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분명 우리가 처한 상황과 임무의 불길한 성격이 기묘한 상황과 맞물려 일어난 연상 작용이었을 것이다. 사실 그 상황 자체는 딱히 무섭거나 비정상적인 것도 아니었다.

다만 삼촌의 표정이 문제였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불러일으킨 기괴한 꿈 때문에 분명 마음이 어지러웠겠지만, 삼촌의 얼굴에는 평소답지 않은 극심한 동요가 서려 있었다. 삼촌의 평소 표정은 친절하고 교양 있는 침착함 그 자체였다. 하지만 지금 삼촌의 얼굴에는 온갖 감정이 뒤섞여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나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바로 그 감정의 '다양성'이었다.

삼촌은 점점 더 심하게 몸을 뒤척이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는 눈까지 번쩍 뜨인 채 괴로워하는 그 모습은, 한 사람이 아니라 마치 여러 명의 사람이 섞여 있는 듯했다. 그것은 마치 삼촌 자신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듯한, 기묘하고 이질적인 느낌을 풍기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말을 내뱉는 그의 입술과 치아의 움직임이 무척이나 불쾌하게 느껴졌다. 처음에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러다 문득, 나는 엄청난 충격과 함께

그 말속에서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그 순간 온몸에 얼음 같은 공포가 엄습했다. 나는 그제야 삼촌이 얼마나 방대한 지식을 쌓아왔는지, 그리고 《르뷔 데 뒤 몽드(Revue des Deux Mondes)》에 실린 인류학 및 골동품 연구 관련 논문들을 얼마나 끝도 없이 번역해 왔는지를 떠올렸다. 존경받는 엘리후 휘플은 프랑스어로 중얼거리고 있었던 것이다. 내가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었던 몇 마디 문구들은, 그가 그 유명한 파리의 잡지에서 옮겨 적었던 가장 어두운 신화들과 관련이 있어 보였다.

잠든 이의 이마에 갑자기 식은땀이 맺히더니, 그는 반쯤 깨어난 상태로 벌떡 몸을 일으켰다. 뒤섞여 들리던 프랑스어 소리는 이내 영어 비명으로 바뀌었다. 쉼 목소리가 흥분한 듯 외쳤다. "내 숨, 내 숨이!" 이윽고 그는 완전히 잠에서 깨어났다. 일그러졌던 얼굴 표정이 평소처럼 돌아오자, 삼촌은 내 손을 움켜쥐고 꿈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 꿈이 품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나는 경외감 섞인 두려움을 느끼며 짐작할 뿐이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아주 평범한 꿈의 장면들 사이를 떠돌다 어느 순간 낮은 풍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고 했다. 그 풍경의 기이함은 그가 지금까지 읽어온 그 어떤 것과도 궤를 달리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면서도 동시에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었다. 그림자처럼 일렁이는 기하학적 혼돈 속에서, 익숙한 사물들이 지극히 생소하고도 불안한 조합으로 뒤섞여 나타났다. 마치 기묘하게 뒤죽박죽 흐트러진 그림들이 서로 겹쳐져 있는 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의 본질마저도 가장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녹아내려 뒤섞인 형국이었다. 환영이 소용돌이치는 이 만화경 같은 소용돌이 속에는, 굳

이 표현하자면 찰나의 순간처럼 아주 선명하면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질적인 장면들이 간간이 스쳐 지나갔다.

한번은 내 삼촌이 아무렇게나 파헤쳐진 구덩이 속에 누워 있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다. 그 위로는 형클어진 머리카락과 삼각모를 쓴 분노에 찬 얼굴들이 무리 지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또 다른 때는 어느 집 안, 그것도 낡은 집의 내부인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집 안의 세부적인 모습과 거주자들은 끊임없이 변해갔다. 문과 창문조차 움직이는 가구들만큼이나 쉴 새 없이 형태를 바꾸고 있었기에, 삼촌은 마주하는 얼굴이나 가구, 심지어 그 방 자체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그것은 기이했다. 지독할 정도로 기이했다. 삼촌은 그 기묘한 얼굴들 중 상당수가 분명히 해리스 가문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치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을 것을 예상이라도 한 듯 거의 죄책감을 느끼는 듯한 말투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삼촌은 무언가에 숨이 막히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마치 도처에 깔린 어떤 존재가 그의 몸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그의 생명 활동을 통째로 장악하려는 것만 같았다.

81년 동안 쉼 없이 가동되며 마모될 대로 마모된 그 생명 유지의 과정이, 가장 젊고 강한 생명체조차 공포에 떨게 할지도 모를 미지의 힘과 충돌한다는 생각에 나는 몸서리쳤다. 하지만 이내 꿈은 그저 꿈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 불길한 환영들은, 최근 우리의 온 정신을 사로잡았던 그 조사와 기대들에 대해 삼촌이 보인 반응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묘한 이질감도 곧 사라졌었다. 나는 밀려오는 하품을 이기지 못하고 차례를 넘겨 잠자리에 들었다. 삼촌은 이제 아주 말간 정신으로 깨어 있는 듯했다. 비록 악몽 때문에 정해진 두 시간보다 훨씬 일찍 잠에서 깨어나긴 했으나, 삼촌은 기꺼이 밤을 지키는 시간을 맞이했다.

잠은 빠르게 나를 덮쳤고, 곧바로 지독히도 불길한 꿈들이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환상 속에서 나는 우주적이고도 심연 같은 고독을 느꼈다. 사방에서는 적의가 파도처럼 밀려들었고, 나는 어딘가 갇혀 있는 죄수처럼 느껴졌다. 몸은 묶인 채 입은 막혀 있었으며, 내 피를 갈구하는 멀리 떨어진 군중들의 울부짖음이 메아리치며 나를 조롱했다. 꿈 속에서 마주한 삼촌의 얼굴은 깨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불쾌한 모습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르려 애쓰며 헛된 몸부림을 쳤던 기억이 난다.

결코 편안한 잠이 아니었다. 꿈의 장벽을 찢고 울려 퍼진 날카로운 비명 소리에 소스라치며 깨어났을 때, 나는 잠시나마 그 비명이 들린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정신이 번쩍 든 채 눈을 뜨자, 눈앞의 모든 사물은 비정상적일 만큼 또렷하고 생생하게 다가왔다.

나는 삼촌의 의자를 등지고 누워 있었다. 갑작스레 정신이 번쩍 들었을 때 눈에 들어온 것은 거리로 난 문과 창문, 그리고 방 북쪽의 벽과 바닥, 천장뿐이었다. 그 풍경들은 곱팡이의 발광이나 거리의 가로등 불빛보다도 더 밝은 빛 속에서, 병적인 선명함을 띠며 내 뇌리에 각인되었다. 그 빛은 강렬하거나 결코 만만치 않은 밝기도 아니었다. 일반적인 책을 읽을 수 있을 만큼 밝은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 하지만 그 빛

은 바닥에 내 모습과 간이침대의 그림자를 드리웠고, 단순한 광도를 넘어선 무언가 더 강력한 힘을 암시하듯 노르스름하고도 침투력 있는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다른 두 감각이 격렬한 공격을 받고 있었음에도, 나는 이 기묘한 빛을 비정상적일 만큼 예리하게 감지했다. 귀에는 방금 들은 그 충격적인 비명 소리가 잔향처럼 울려 퍼지고 있었고, 코끝에는 방 안을 가득 채운 악취가 몰려와 구역질이 치밀었기 때문이다. 정신은 감각만큼이나 기민하게 움직이며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차렸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켜 뒤를 돌았다. 그리고 벽난로 앞 곰팡이 핀 곳을 향해 겨누어 두었던 파괴적인 도구들을 움켜쥐려 했다. 몸을 돌리는 순간, 나는 마주하게 될 광경이 두려워 몸서리쳤다. 그 비명은 분명 삼촌의 목소리였기에, 대체 어떤 위협으로부터 삼촌과 나를 지켜내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눈앞의 광경은 내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공포를 넘어선 공포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바로 이것이 그러할 것이다. 우주가 저주받은 불행한 소수만을 골라 파멸시키기 위해 남겨둔, 상상 가능한 모든 추악함의 핵이 바로 이것이었다.

버섯이 뒤덮인 땅 위로 노랗고 병적인 시체 빛의 증기가 피어올랐다. 그 증기는 거대한 높이까지 부글거리며 솟구쳐 올랐고, 인간과 괴물의 형상이 뒤섞인 모호한 윤곽을 그리며 일렁였다. 그 형상 너머로 굴뚝과 벽난로가 보일 정도였다. 그것은 온통 눈뿐이었다. 늑대처럼 번뜩이며 나를 조롱하는 눈들이었다. 곤충처럼 울퉁불퉁한 머리 부분

은 꼭대기에 이르러 가느다란 안개 줄기로 흩어졌고, 그 안개는 부패한 기운을 내뿜으며 소용돌이치다 결국 굴뚝 속으로 사라졌다.

내가 이 존재를 보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형체를 갖추며 저주스럽게 다가오는 과정을 명확히 그려낼 수 있는 것은 오직 의식적인 회상을 통해서뿐이다. 당시 내 눈에 비친 것은 그저 꿈틀거리는, 희미한 인광을 내뿜는 곰팡이 덩어리의 구름일 뿐이었다. 그 구역질 나는 구름은 내가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던 단 하나의 대상을 혐오스러운 가소성으로 감싸 안으며 녹여내고 있었다.

그 대상은 나의 삼촌, 존경받는 엘리후 휘플이었다. 검게 변하며 씩어가는 얼굴을 한 그는 나를 향해 비열하게 눈을 치뜨며 횡설수설했고, 이 공포가 물고 온 광기 속에서 나를 찢어발기려는 듯 액체가 뚝뚝 떨어지는 발톱을 뺏어왔다.

나를 미치지 않게 붙들어 준 것은 일상적인 규칙을 지키려는 의지였다. 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대비해 스스로를 단련해 왔고, 그 무의식적인 훈련이 나를 구했다. 부글거리는 악의 실체가 물질이나 화학적 성분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것임을 깨달은 나는, 왼편에 버티고 선 화염방사기를 무시한 채 크룩스관 장치에 전류를 흘려보냈다. 그리고 인간의 기술로 자연의 공간과 유체로부터 끌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에테르 방사선을 그 불멸의 신성모독적인 광경을 향해 집중시켰다. 푸르스름한 안개가 피어오르고 광란에 찬 듯한 파열음이 들려왔다. 내 눈에는 노란 인광이 점점 흐릿해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흐릿함은 단지

대비 효과일 뿐이었으며, 기계에서 뿜어져 나오는 파동은 그 존재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악마 같은 광경 속에서, 나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새로운 공포를 목격했다. 나는 무엇이든 상관없다는 듯, 세상에 어떤 기괴한 공포를 풀어놓든 혹은 사람들에게 어떤 비난과 심판을 받든 개의치 않고, 열려 있는 문을 향해 더듬거리며 비틀거렸다. 조용한 거리로 이어지는 그 문을 향해서 말이다.

푸른빛과 노란빛이 뒤섞인 희미한 빛 속에서, 삼촌의 형체는 형언할 수 없는 역겨운 액체로 변해가고 있었다. 사라져 가는 삼촌의 얼굴 위로 오직 광기만이 상상할 수 있는 기이한 변화들이 휘몰아쳤다. 그는 단번에 악마이자 군집이었고, 시체 안치소이자 화려한 행렬이었다.

불규칙하게 흔들리는 빔줄기에 비친 그 젤리 같은 얼굴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모습으로 변해갔다. 녹아내리는 양초처럼 형체를 잃어가는 몸 위로, 그 얼굴은 바닥을 향해 가라앉으며 기괴하게 웃어댔다. 그것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수많은 군단의 모습을 뒤틀린 채 흉내 내고 있었다.

해리스 가문의 이목구비가 내 눈앞에 어른거렸다.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성인과 유아의 형상, 그리고 노년과 청년의 모습이 뒤섞여 있었다. 거친 것과 세련된 것, 익숙한 것과 생경한 것들이 한데 뒤엉켰다. 찰나의 순간, 디자인 학교 박물관에서 보았던 불쌍하고 미친 로비 해리스의 세밀 초상화가 타락하고 일그러진 모조품의 모습으로 번뜩

였다. 또 다른 순간에는 캐링턴 해리스의 저택에 걸려 있던 초상화 속에서 텍스터의 뼈대 붉은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다.

그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끔찍했다. 마지막에 이르러, 초록빛 기름 웅덩이가 번져 나가는 곰팡이 핀 바닥 근처에서 하인과 아기의 얼굴이 기묘하게 뒤섞여 일렁거릴 때였다. 변화무쌍하게 움직이는 그 이목구비들은 마치 서로 싸우기라도 하듯, 우리 삼촌의 인자한 얼굴 윤곽을 만들어내려 애쓰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그 순간 삼촌이 실제로 존재하며 내게 작별 인사를 건네려 했다고 믿고 싶다. 비에 젖은 거리로 비틀거리며 뛰쳐나올 때, 바짝 마른 내 목구멍에서는 딸꾹질 같은 작별의 말이 터져 나왔다. 문틈을 따라 가느다란 기름 줄기가 나를 뒤쫓아 비에 젖은 보도로 흘러나왔다.

* * * * *

그 뒤의 일은 온통 어둡고 괴기스럽다. 흠뻑 젖은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내가 차마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나는 목적 없이 남쪽으로 걸었다. 켈리지 힐과 애더넘을 지나 홉킨스가를 내려갔고, 다리를 건너 상업 지구로 향했다. 그곳의 높은 건물들은 마치 현대적인 문명물들이 고대의 불결한 경이로부터 세상을 지켜내듯, 나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보였다.

이윽고 동쪽에서 젖은 기운을 머금은 회색 새벽이 밝아왔다. 고대의 언덕과 그 위의 유서 깊은 침탑들이 실루엣을 드러냈다. 그 풍경은 마치 나의 끔찍한 과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며 나를 그곳으로 손짓하는 듯했다.

결국 나는 발걸음을 옮겼다. 몸은 젖었고 모자도 쓰지 못한 채, 아침 햇살 속에서 멍한 정신으로 그곳에 다다랐다. 나는 베니핏 가에 있는 그 소름 끼치는 문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살짝 열어두고 떠났던 그 문은, 내가 차마 말을 걸 용기조차 내지 못했던 이른 아침의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전히 기괴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곰팡이 핀 바닥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 기름기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벽난로 앞에도 초석으로 그려져 있던 거대한 웅크린 형체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다. 나는 간이침대와 의자들, 각종 기구들, 그리고 내팽개쳐진 내 모자와 삼촌이 쓰던 누렇게 변한 밀짚모자를 차례로 살펴보았다. 정신은 멍했고, 무엇이 꿈이었으며 무엇이 현실이었는지조차 간신히 분간할 수 없었다. 그러다 서서히 사고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나는 내가 꿈속에서 보았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리에 앉은 나는 제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리고 만약 그 공포가 실재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끝낼 수 있을지를 추측해 보려 애썼다. 그것은 물질도 아니었고, 에테르도 아니었으며, 필멸자의 정신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혹시 어떤 기이한 '방출물'인가? 엑서터의 시골 사람들이 특정 묘지 위를 떠도는 것이라 말하곤 하는, 흡혈귀 같은 증기 같은 것인가? 나는 이것이 실마리라고 느꼈다. 나는 다시 한번 벽난로 앞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곰팡이와 초석이 기괴한 형상을 이루며 피어 있었다.

십 분 만에 결심을 굳혔다. 나는 모자를 챙겨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해 몸을 씻고 식사를 마친 뒤, 곧장 전화를 걸어 물건들을 주문했다. 곡괭이 하나와 삽 한 자루, 군용 방독면, 그리고 황산이 담긴 카보이 여섯 개였다. 다음 날 아침, 베니핏 가에 있는 그 기피되는 집의 지하실 문 앞으로 모두 배달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나서 잠을 청해보았으나 결국 잠들지 못했다. 나는 울적한 기분을 떨쳐내려 책을 읽거나 의미 없는 시를 지으며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오전 11시, 나는 땅을 파기 시작했다. 날씨는 화창했고, 나는 그 사실이 다행이라 여겼다. 여전히 혼자였다. 내가 찾으려는 미지의 공포가 두렵기도 했지만,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은 그보다 더 큰 공포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나중에 해리스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은 것은 오로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고, 또한 그가 노인들에게 기이한 이야기들을 들어온 덕분에 이런 일을 믿는 데 거부감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벽난로 앞의 악취 나는 검은 흙을 파헤치던 중, 삽날이 하얀 버섯을 가르자 그 사이로 끈적하고 노란 액체가 흘러나왔다. 나는 내가 무엇을 파헤치게 될지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에 몸을 떨었다. 지구 내부의 어떤 비밀들은 인류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 그리고 지금 내가 마주한 것이 바로 그런 비밀 중 하나라는 예감이 들었다.

손이 눈에 띄게 떨렸지만, 나는 계속해서 파 내려갔다. 한동안 내가 판 커다란 구덩이 안에 서 있었다. 가로세로 약 6피트 크기의 구덩이가 깊어질수록 악취는 더욱 심해졌다. 1세기 반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집을

저주해 온 그 지옥 같은 존재와, 곧 마주하게 되리라는 사실에 나는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어떤 형태와 실체를 지녔을지, 그리고 오랜 세월 생명력을 빨아들이며 얼마나 거대하게 자라났을지 궁금했다.

마침내 구덩이 밖으로 기어 올라온 나는 쌓아둔 흙을 옆으로 치웠다. 그리고는 커다란 산성 용액 병들을 두 면의 주변과 근처에 배치했다. 필요할 때면 병에 든 액체를 구멍 안으로 차례차례 빠르게 쏟아부을 수 있도록 말이다. 그 후 나머지 두 면에는 흙을 대충 덮어두었다. 악취가 짙어지자 나는 가スマ스크를 쓰고 더 느린 동작으로 움직였다. 구덩이 바닥에 도사린 이름 모를 존재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공포로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었다.

갑자기 삼 끝에 흙보다 부드러운 무언가가 걸렸다. 나는 몸서리를 치며, 어느덧 목까지 차오른 구덩이 밖으로 기어 나가려는 듯한 몸짓을 했다. 하지만 곧 용기를 내어, 미리 준비해 둔 전등 빛에 의지해 흙을 더 파헤쳤다.

드러난 표면은 생선 비늘처럼 번들거리고 유리질 같았다. 반투명한 기운이 감도는, 반쯤 부패하여 엉겨 붙은 젤리 같은 물질이었다. 나는 더 깊이 굽어냈고, 그것이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물질의 일부가 접힌 곳에는 틈새가 벌어져 있었다. 드러난 부위는 거대하고 대략 원통형이었는데, 마치 거대하고 물렁한 청백색 연통을 반으로 접어 놓은 듯했다. 가장 두꺼운 부분의 지름만 해도 2피트에 달했다.

나는 흠을 더 긁어내다가, 돌연 구덩이 밖으로 뛰어올라 그 불결한 물체로부터 멀리 달아났다. 그리고 미친 듯이 무거운 카보이(carboy)의 마개를 뽑고 기울여, 그 부식성 액체들을 차례차례 그 시체 구덩이 속으로 쏟아부었다. 내가 거대한 '팔꿈치'를 목격했던,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기괴한 변종 위로 액체를 퍼부었다.

* * * * *

산성 액체가 쏟아져 내려갈 때, 그 구멍에서 폭풍처럼 솟구쳐 오르는 황록색 증기의 눈부신 소용돌이는 내 기억에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언덕 일대의 사람들은 프로비던스 강에 버려진 공장 폐기물에서 독하고 끈적한 가스가 피어올랐던 그 '노란 날'에 대해 이야기하곤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가스의 근원이 무엇인지 완전히 잘못 알고 있다. 사람들은 또한 그와 동시에 지하의 파손된 수도관이나 가스관에서 끈적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고 말한다. 하지만 나 역시 감히 입을 열 용기가 있다면 그들의 오류를 바로잡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 광경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이었고, 내가 어떻게 그 상황에서 살아남았는지조차 의문스럽다. 가스가 마스크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한 뒤, 네 번째 카보이를 옮기다 나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하지만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 구멍에서는 더 이상 새로운 증기가 뿜어져 나오지 않고 있었다.

남아 있던 두 개의 카보이(carboy)도 내용물을 다 비워냈으나 별다른 결과는 없었다. 시간이 좀 흐른 뒤에야 나는 구덩이에 다시 흠을 채워 넣을 수 있을 만큼 안심이 되었다. 작업을 마쳤을 때는 이미 황혼이

깔린 뒤였지만, 그곳을 짓누르던 공포는 사라져 있었다. 눅눅한 공기에서도 악취가 덜해졌고, 기괴한 버섯들은 모두 시들어 무해한 회색 가루가 되어 있었다. 그 가루는 마치 재처럼 바닥을 따라 흘날렸다. 지구의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던 공포 중 하나가 영원히 소멸한 것이다. 만약 지옥이라는 곳이 존재한다면, 그곳은 마침내 불경한 존재의 악마 같은 영혼을 받아들인 셈이다. 마지막 삼으로 호흡을 다독여 덮으며, 나는 사랑하는 숙부님의 기억을 기리며 흘렸던 수많은 눈물 중 첫 방울을 떨구었다.

다음 해 봄, 기괴되는 집의 계단식 정원에는 더 이상 창백한 풀이나 기괴한 잡초가 돌아나지 않았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캐링턴 해리스가 그 집을 임차했다. 그곳은 여전히 유령이 나올 듯 음산하지만, 그 기묘함은 나를 매료시킨다. 훗날 저급한 상점이나 천박한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를 만들기 위해 그 집이 철거된다면, 나는 안도감과 동시에 묘한 후회마저 느낄 것이다. 마당의 메마른 고목들은 작고 달콤한 사과를 맺기 시작했고, 작년에는 새들이 그 뒤틀린 가지 사이에 둥지를 틀기도 했다.

그 집은 베니핏 가의 가장 구석진 곳에, 마치 세상의 끝에서 솟아오른 듯 기괴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그것은 건축물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거대한 흉물에 가까웠다. 낡고 뒤틀린 목재들은 마치 고통에 몸부림치는 생명체의 근육처럼 엉겨 붙어 있었고, 창문들은 초점 없는 눈동자처럼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그 집 주변을 감싸는 공기는 유독 무겁고 차가웠으며, 그 근처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쾌감과 공포에 휩싸여 서둘러 발걸음을 옮기곤 했다.

사람들은 그 집을 기피했다. 그것은 단순한 혐오가 아니라, 본능적인 거부감이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 집과 관련된 불길한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휘플 가문이 그곳에 살기 시작한 이후로, 집 주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졌다. 밤마다 들려오는 정체를 몰을 울음소리,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는 방에서 새어 나오는 희미한 불빛 같은 것들 말이다.

엘리후 휘플은 그 모든 소문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았으며, 마치 이 세상의 사람이 아닌 듯한 기묘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가 그 집의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볼 때면, 사람들은 마치 거대한 심연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다. 그 집은 단순히 낡은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품고 있는 거대한 함정처럼 보였다.

필사자의 주:

이 전자책은 1937년 10월호 《위어드 테일즈(Weird Tales)》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광범위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이 출판물의 미국 저작권이 갱신되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소한 철자 및 오타 오류는 별도의 언급 없이 수정되었다.